

2011년 11월호
(통권 215호)

해나리

꿈과 사랑을 가꾸는 목5동 성가정 성당



해는 태양(陽) · 나리는 내(川)의 옛말로, 해나리는 하느님의 빛이 햇빛처럼 내리는 우리 고을 양천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 사랑이요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당신의 성사에서 비롯되었나이다.
-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랑의 샘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당신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의 선익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 나자렛 성가정의 전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주님 성탄 | 중앙 동굴 입구에 아기 예수께서 누워 있는데, 천에 감겨있는 모습은 수의를 형상화한 것으로 주님께서 겪으실 죽음을 통해 참 인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소와 나귀가 함께 있음은 이사야서 1장의 내용 즉 구세주께서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한다. 상단 좌측에는 동방박사들, 우측에는 목동들이 천사들과 함께 묘사되어 있으며, 하단 좌측에는 유혹하는 이가 요셉에게 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음을 나타내며 한 여인이 물에 씻기려 하고 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은 살로메라는 산파였으며 요셉의 청에 따라 성모의 해산을 도왔으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말을 비웃자 손이 말라 비틀어졌으나 아기 예수께서 그 손을 만지자 치유되었다고 한다. 목판에 에그 템페라, 80 x 180 (표지 이콘 설명)

한눈에 보기

여는 페이지	02	가정을 위한 기도
해나리 열어보기	03	내용 한눈에 보기
연재합니다	04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26) ·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
전례상식	07	대림절
신부님 우리 신부님	08	내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의 친정 · 박민우 알베르토
특집	10	견진성사
글마당	14	성탄제를 준비 중인 유치부 파이팅 · 이양순 소화데레사
	16	햇살잔치를 마친 후 · 신준규 베드로
	18	라우스에서 얻은 보물 · 이나경 마리아로사
	20	이사야서를 마치며 · 이치화 리드비나
	22	보시니 참 좋았다 · 전영희 데레사
	23	출애굽 성서 모임을 끝내고 · 허순옥 로사
성가정 갤러리	24	마음을 드높이-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대화 · 큐레이터 장주미 클라라
성당소식	26	사진으로 보는 본당의 소식
쉬어가기	30	
소공동체모임	31	1-2구역 9반 소공동체 모임 · 황영자 아네스
문화 교실	32	디지털 사진 · 쉼트
월요음악회	34	사진으로 보는 월요음악회
	35	2011 해나리 월요음악회를 마감하며 · 주세페 김동규
농산물방	36	하늘땅물빛의 물품 소식
전입교우명단	37	
광고	38	



발행인 이영춘 세례자 요한 주임 신부님
 편집 백명애(마르가리타), 이성자(마리아나), 안신혜(가브리엘라), 이현정(소화데레사)
 사진 황경희(엘리사벳)
 발행일 2011년 11월 (215호)
 전화 2644-1100 FAX 2644-9100
 E-mail haenari0330@hanmail.net 홈페이지 www.mok5.com(한글주소/목5동성당.com)
 표지사진 주님 성탄

날마다 생각한 하느님 (26)

- 샤를 델레의 [소용없는 하느님] -

조규만(바실리오) 주교님



샤를 델레 신부님은 하느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느

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느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삽니다. 프랑스 작가가 그린 만화에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 데이트 하느라 바쁘다고 주일미사를 빼먹고 하느님에게 다음에 보자고 ‘아듀’ 하며 떠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초상화의 한 장면인 듯 싶습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일찍이 프랑수아 바리용 신부님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느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긍정한다. 하느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느님을 부정한다. 이 대립된 두 형식은 모두 빈약한 발상이다.”

샤를 델레 신부님은 이 지적에 적극 동의하는 셈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어디에 소용되느냐고 질문한다

면…… 하느님은 아무데도 소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소용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어왔는데 그 기초부터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샤를 델레 신부님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지적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든 과학의 허점을 메우는데 하느님을 이용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느님을 하나의 잡부로 만들어 놓고, 신앙과 과학을 분리시켜 놓고 말았다고 한탄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하느님을 까다로운 헌병으로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들의 삶을 감시하여 착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려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 기준은 일괄적으로 한 번 설정해 놓은 엄격한 윤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에 관한 이해로서는 예수님이 알려준 하느님의 모습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시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무 탓 없이, 아니 가장 멋진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샤를 델레 신부님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소득에 혈안이 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치스러운 존재시다. 그분은 효력에만 급급 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쓸모없는 무용의 존재시다. 그분은 돈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우리 인간을 무색하게 만드는 순수한 무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조금 이해할 듯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이해할 듯합니다.

샤를 델레 신부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소용없는 하느님의 큰 의미를 이해시켜 줍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 연약한 꽃이 어느 날 아침 피어난다. 꽃은 스스로 피어나고 다른 꽃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온갖 색깔들을 다 펼쳐 가며 장식한다. 이 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 그런 것들이 없다고 슬퍼할 사람이 있겠는가? … 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정력과 시간이 소비된다! … 화려한 불빛과 꽃들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가 하면 음악이 우리 귀를 더욱 흥겹게 해준다. 함께 나누는 대화와 춤, 노래 속에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 … 불과 몇 시간 후면 이런 풍요로운 잔치는 하나의 추억을 남긴 채 끝나 버리고 만다.”

그렇습니다. 꽃이 내 방에 없다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축제가 없다고 인간이 살아가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명을 준 책이나 영화, 그것을 보지 않고도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여행이 인생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여행을 해보지 않고도 산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 빵이 없으면 살 수 없어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도, 꽃이나 여행이나 책이나 축제는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훌륭한 화가의 멋진 그림! 소용없습니다. 그 그림을 갖거나 보지 못해도 살아가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고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소용이 없는 꽃이기 때문에 꽃이 있어서 내 방이 더 화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용없는 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면 다 추억으로 남기고 사라질 소용없는 축제로 우리의 삶이 더 활기를 띄게 됩니다. 소용없기 때문에 꽃이 통째

로 선물이 됩니다. 소용없기에 그 축제가 선물이 됩니다.

하느님도 그렇습니다. 하느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겠지만, 소용없는 하느님 때문에 내 삶이 더 든든해집니다. 하느님과 하느님께 대한 내 믿음이 통째로 선물이 됩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 소용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인간은 세상 만물처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처럼,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것이 당연했던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신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째로 주어진 선물이 된 것입니다.

소용없는 하느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선물이 되십니다.

샤를 델레 신부님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고상한 활동은 언제나 이 소용없는 것에 속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빵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는 데는 빵이 필수적이지만, 필수적인 빵보다 더 비싼 그림을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여행을 떠납니다. 소용없는 예술품을 위해 필수적인 집보다 더 비싼 값을 치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물보다 소용없는 하느님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닐까요? 🙏

교리상식 고백성사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하도록 해주는 성사입니다. 인류를 교회로 불러 모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은 세례를 통하여 원죄와 그동안에 자신이 지은 죄, 즉 본죄의 사함을 받고 교회 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므로 예수님은 고백성사를 세워 당신의 죄를 사하는 권한을 12사도들에게 주시어 인간을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의 이 사죄권은 다시 그 후계자인 주교와 그 협조자인 신부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고백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생각해 내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친 후 다시는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을 결심을 합니다. 고백신부님께 죄를 고백하면 사제는 죄를 용서해 주고 보속을 주시는데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고백성사는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성사이므로 위급할 경우에는 고백성사를 받으려는 원의를 가짐으로써 성사를 실제로 받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통회에는 죄로 인해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른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상등통회와 지은 죄로 인해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하등통회가 있는데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 통회는 꼭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한 모든 신자는 일 년에 적어도 한 번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법 제 989조)

대림절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전 4주간을 말하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전례 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의 탄생과 세말의 심판을 위한 재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 각자가 구세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대한 희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림시기

예수 그리스도님의 성탄과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시기의 제1주일은 오실 구세주를 깨어 기다려야 하는 교회의 종말론적 자세를 강조하고, 제2주일은 구세주의 오심에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제3주일은 구세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고 권고하며, 제4주일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 시기의 미사와 성무일도의 기도문들은 주로 이사야 예언서와 세례자요한의 설교로 구성되었는데, 이유는 이사야 예언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약속했으며, 마지막 예언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세주가 오심을 선포하여 신약의 시간을 여는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림시기에는 제대 주위의 화려한 장식을 피하고, 대영광송을 하지 않으며, 사제는 사순시기와 같이 속죄와 회개의 의미가 담긴 자주색 제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전례를 지내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님의 탄생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대림환

대림환은 독일 선교사 비허(Wicher)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는 4개의 초를 푸른 나뭇가지로 엮어 둥근 모양으로 장식한 것이다. 이처럼 모양이 둥글다 하여 ‘환’이라는 말을 쓴다. 4개의 초는 동서남북, 즉 온 누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1주간마다 1개씩의 촛불을 켜게 된다. 한 주간마다 한 개 씩의 초를 더키는 것은 주님의 구원계획이 순리적으로 완성 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림환에 사용되는 초는 원래 붉은색 2개, 노란색 1개, 흰색 1개였다. 여기서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상징하며, 노란색은 영혼과 육신의 생명력을, 흰색은 신적 영광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했다. 요즘은 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의 초가 주로 사용된다. 이런 색상의 변화는 회개와 보속을 뜻하는 사제의 보라색 제의에서 연유한 듯하다. 보라, 연보라, 분홍, 흰색의 순서로 한 주간 마다 촛불을 켜는데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의 변화는 어둠을 밝히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

내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의 친정

설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박민우 알베르토



오늘도 어김없이 아이들은 미사 시간 내내 떠들고 장난을 칩니다. 교리 시간에도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뛰어다닙니다. 담당 신부로서 아이들을 잡아놓고 혼줄을 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20여 년 전 저도 똑같이 미사 시간 내내 떠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속을 썩였기 때문입니다.

23년 전 목동으로 이사를 와서 목1동 성당 초등부 미사를 나갔던 것이 었그제 같다고 하면 너무 과장이고 지난 달 정도 되는 듯합니다. 매주 토요일 어머니께서 현금하라고 주신 500원을 받아 200원으로 오락실을 가고 100원으로 떡꼬치를 사 먹고 나머지 200원만 현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때로는 그중에서도 100원을 떼어 5분에 50원을 내야하는 덤블링을 10분씩 타기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타고난 '악동'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순수한(?)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의 위치에 목5동 성당을 신축 건립할 무렵에는 매주 공사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숨바꼭질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 받은 돈의 반도 봉헌하지 않던 꼬마는 어엿한 사제가 되었고, 당시

큰 상처를 받아 하염없이 울었던 주일학교 여교사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며, 아이들에게 최적의 숨바꼭질 장소를 제공해주던 공사판은 25주년을 맞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목5동 성당 설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가장 최근인 2009년 목5동 본당 출신으로 사제 서품을 받은 박민우 알베르토입니다. 매달 저에게 보내주시는 <해나리>에서 최근 몇 달 동안 실린 선배 신부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아... 내 차례가 다가오겠구나.' 했는데 지난주 이영춘 세례자요한 신부님의 문자 한 통을 받고 '아... 올 것이 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목5동 성당에서의 추억을 하나씩하나씩 떠올리다가 오늘에서야 '내일까지 원고 보내드리기로 했었지...' 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나 아득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5동 성당'이라는 말만 들으면 팬스레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리운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고 한번쯤 다시 가보고 싶어지는 것을 보면 이런 느낌이 고향에 대한 향수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집 드나들듯 성당을 오가고 정말 많은 시간을 성당에서 보냈습니다. 수많은 추억들을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그 추억을 공유하는 저의 제일 친한 친구들

은 죄다 성당 친구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사제 서품을 받기까지 학창시절 또 신학생 시절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곳은 목5동 성당이고,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은 목5동 본당 식구들이었습니다. 목5동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과 도움으로 저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대치2동 성당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는데도 아직 반팔을 입은 채로 이 글을 쓰는 걸 보면 대치동 엄마들의 교육열은 목동보다도 뜨거운가봅니다. 사제로 부임한 첫 본당이고 워낙 유명한(?) 동네여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 곳 신자 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이곳에서도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는 요즘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리고 그 사랑의 반의 반의 반도 아직 다 갚지 못해서 많이 슬프기도 합니다.

목5동 성당에서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다가 문득 '신학생으로 살던 그때와 사제가 된 지금,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는가?' 하는 생각에 잠겨 봅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학생 때는 성당에서 주로 신자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제대 벽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사제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십자가를 '등지고'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사를 집전할 때도 강론을 할 때에도 사제로서 신자들 앞에 서야하는 경우에 늘 제대 벽의 십자가를 등지고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십자가를 등지고 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보다는 나 자신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내 인기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렇게 점점 교만해집니다. 사제가 되면 더욱 거룩해지고 겸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만의 유혹에 더 쉽게 그리고 더 가깝게 노출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의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도.

목5동 본당에서 자라고 목5동 본당에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편하게 기도를 부탁드릴 수 있는 곳도 목5동 본당입니다. 이제 갓 3년차. 아직도 어리바리 실수가 많고 하루하루 사제생활을 겨우 버텨내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새벽미사에 한 자매님이 미사 시작부터 끝까지 싱글벙글 하시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오랜만에 친정에 놀러가서 즐겁고 기쁘다고 답을 합니다. 저도 늘 목5동 성당을 생각할 때마다 고향과 같은 포근함을 느끼고 목5동 성당 주변을 지날 때마다 친정에 온 듯한 반가움을 느낍니다. 다시금 제 고향이며 친정인 목5동 성당의 설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이웃이 보기에든 늘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



건진성사

11월 26일 236명 건진 세례식



+ 자비로우신 하느님,
성령이 저희 마음에 오시어,
저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 안에 계심으로써 이 성전을 완성케 하소서.
또한 건진성사를 청하는 저희에게 성령의 불을 놓으시어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만민의 복음화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 8,14~17)



견진 세례식



견진성사란?

성세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의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성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무면서 교회의 직무인 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직이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하는 것이며, 사제직이란 사제이셨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이 되사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일상 삶, 노동과 기도, 고통과 기쁨을 바치는 것입니다. 왕직이란 착한 목자이며 왕이셨던 그리스도를 닮아 이웃과 세상에 봉사, 즉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사랑의 봉사를 통해 세상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생에 한 번만 받게 되는 견진성사는 '성유와 안수로써 영세자를 은총으로 견고케 하여 그리스도의 군사 된 표를 주는 성사'이고, 성세성사처럼 인호를 받게 되며, 상존 은총을 증가시키고, 성령의 '칠은'을 주는 성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슬기, 통달, 의견, 지식, 효경, 두려워함입니다.

성령의 일곱 가지 은혜

1. 슬기 - 하느님 공경과 영혼 구령 일에 흥미를 둔 우어 주는 은혜
2. 통달 - 교리를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이치를 판단하는 은혜
3. 의견 -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은혜

4. 굳셈 - 신앙에 반대되는 것과 싸워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은혜
5. 지식 - 교리 문제에 있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는 은혜
6. 효경 - 하느님을 우리의 참 아버지로 받드는 은혜
7. 두려워함 -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고 자기 영혼이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는 은혜

통상적으로 집전자는 그 지역 주교이나 특별한 경우 사제도 집전할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의 대상자는 성세 받은 신자로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자이며 견진 대부 대모는 만 16세 이상의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견진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적, 외적 준비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요한 14,16-17, 사도 18,16-17의 성경 내용에서 보이듯이 성세 성사를 받은 다음에 견진 성사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실은 사도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견진 성사의 재료는 올리브 기름에 발사마 향을 섞은 것으로, 특별히 주교가 축성한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기름은 물체를 견고케 하고 투명하며 빛나게 하여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견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신앙을 위해 견고해야 하며 모든 덕행을 갖추는 성령의 은혜를 잘 표현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 세속과 육신, 악마와 싸워야 하니까, 굳은 신덕과 충분한 교리 지식이 필요합니다. 📖

성탄제를 준비 중인 유치부 파이팅

유치부 선생님 이양순 소화테레사



“신앙의 신비여~” 토요일 오후 3시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시간, 신부님 목소리보다 한 박자 빠른 합창소리! 완전히 익히지 못한 한글 실력으로 이어지는 미사시간 내내 대 영광송, 주님의 기도 또한 목청이 터져

라 부릅니다.

매 주 토요일 오후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엄마나 언니 혹은 형을 따라 주일학교에 온 목5동 초등부 유치부 어린이들! 우리는 유아반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구성원의 나이가 5, 6, 7세 다양합니다.

2개의 반으로 나뉘어 교리공부를 하는데, 그 꼬맹이들이 뭘 배울까 궁금하시겠지만, 교재 제 1과 성호경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본자세, 분리수거와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과 자연보호를 배우고, 얼굴색이 다른 인종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임을 알고, 미사전례를 통해 미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잔치이므로 미사에 임하는 깨끗한 몸가짐, 착한 마음과 희생으로 봉헌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기도는 우리의 친구인 예수님과 대화, 선교의 의미로 친한 친구를 예수님의 잔치인 미사와 교리에 초대하기, 마지막으로 성당에 계신 분들을 알아보고 그 분들께 맛있고 간단한 요리를 고사리 손으로 만들어 드리고 유치부 교리내용 일 년을 마무리 합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평생 신앙생활의 기초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교리 내용의 절반은 올바른 신앙인의 기본 덕목이 되는 바른 인성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본예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5동 초등부 유치부 하나 반을 맡고 있는 이양순 소화테레사입니다. 10여 년 전, 부모님께 모태신앙을 전수받은 자로써,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필수이므로 의무와 때로는 재미로 동네 엄마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매주 토요일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정일 신부님과 수녀님의 권유로 초등부 교리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를 맡은 이유는 작년에 은퇴하신 수녀이모님께서 어릴 적 편지와 함께 보내주신 흑백 사진 한 장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당 유치원에서 단발머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예쁘게 기도 손을 하고 계신 이모님을 보고 제 마음 속에 유치부 교리 선생님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박한 꿈을 이룬 지금 저는 매 주 아이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안을 쓰면서 오히려 나의 생활을 반성하게 되고 예닐곱



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서 욕심으로 가득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이웃사랑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신앙과 내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때 엄마가 무릎에 앉혀 놓고 자주 요리강령이라는 책을 보여주시곤 하였습니다. 책이 매우 크고 그림이 온통 파란색 잉크로 인쇄된 성화 책이었습니다. 거기엔 지옥과 천당, 천사, 하느님, 마귀 등 온갖 무시무시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열심히 설명을 하신 엄마의 결론은 늘 사람은 착하게 살고 오로지 천주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언젠가 바티칸에 갔을 때 성바오로성당 천정과 벽에 모두 그려져 있어서 아주 큰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교리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끔씩 책으로 된 성화를 보여줍니다. 천지창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등 어떤 아이는 언젠가 처처럼 성화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보니,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중등부 모든 어린이들이 유치부 출신이네요. 복사대장 정훈이, 아우름 성가대 수빈이, 전례부 민석이, 현재 중고등

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형님 누나들...

어머니 태중에서 엄마의 기도로 시작된 하느님과 의 로맨스로 시작해서, 교사활동 중에 만나는 신부님들과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신부님들과의 로맨스 그리고 수교회합 시간의 진솔한 복음 나누기와 토요일 교리준비 작업을 함께하는 선남선녀로 구성된 청년 썸들과의 로맨스, 또한 매년 초등부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캠프를 통해 해마다 다른 감동과 기적으로 함께하시는 예수님과의 로맨스 그리고 말 주변이 없어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가장 찼한 로맨스로 가득한 나의 삶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애정으로 초등부를 지원해 주시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매주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시는 자모회 선생님들께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올해 남은 초등부 마지막 행사 성탄제, 매년 그러했듯이 올해도 초등부 최고의 감격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 중인 유치부 파이팅! 🎄



햇살잔치를 마친 후

고1 신준규 베드로



10월 30일 일요일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는 강화도로 햇살잔치를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모여 신부님께 강복을 받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 후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작기도를 바친 후 학생회 친구들로부터 갑곷순교성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1호차의 버스 사회를 맡아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버스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 갑곷순교성지는 박상손, 우윤집, 최순복, 세 분이 순교하신 곳이며, 박순집 베드로의 유해를 모

시고 있는 곳이라 합니다. 또한 순교하신 세 분을 기리기 위한 순교자 삼위 비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의 길을 위한 곳과 묵주기도를 위한 묵주기도의 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갑곷성지에 도착하여 학년별로 나누어서 묵주기도를 드렸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현재 갑곷순교성지의 성전이 재건 중이라 좁은 공간에서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미사를 봉헌하러 오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 천주교회 신자 분들의 신앙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사를 드린 후에 다시 버스를 타고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짐을 두고 우선 고구마를 캐러 갔는데, 우리가 캔 고구마는 각자 가지고 갈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짐을 풀 곳으로 돌아와 맛있는 점심을 먹고, 갯벌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으로 레크댄스를 했습니다. 한 3곡 정도를 추고난 후에야, 저희는 갯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벌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몇몇 학생들은 갯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체험학습을 즐기고 갯벌에 들어간 학생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단 갯벌에 들어간 우리는 햇살잔치의 취지에 맞게 학원과 공부를 잠시 잊고 정말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우리가 들어갔던 갯벌은 신기하게도 폭신평신한 쿠션 같이 느낌이 좋았습니다. 갯벌에서 신부님과 선생님들까지도 모두 학생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갯

벌 저 깊숙한 곳에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갯벌 미끄럼틀도 있어서 신나게 미끄러지고 갯벌의 진흙 속에 파묻혀 놀았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일 수도 있지만 갯벌에서 나오기 직전에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버려서 걷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이정도로 어떤 일을 하면서 즐겨 본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갯벌에서 나와 씻고 나니 맛있는 인절미와 코코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코아로 얼었던 몸을 녹이고 노느라 허기졌던 배를 인절미로 채우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간식 시간이 끝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는 성당으로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에 학원과 공부에서 벗어나 즐겁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아서 참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종종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시고, 맑고 깨끗한 날씨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라우스에서 얻은 보물

청년성가대 LAUS 이나경 마리아로사



저는 유아세례를 받았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성당을 다녔습니다.

주말에 성당에 와서 미사를 보는 것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빠질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었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심이 깊으셔서 가정교육을 성서구절로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은총에 대한 믿음을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고3 수험생활, 재수를 하면서 진로를 찾지 못하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고자했던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내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분노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고자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나를 계속 힘든 시험에 빠지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방치하고 있다고 몇 번이고 원망했습니다. 그래도 성당에 가면 조용하고 아늑해서 주일미사는 빠지지 않고 갔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 이끄심이 가장 큰 은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방향을 하던 저는 이과에서 과감히 문과로 방향을 바꿔 삼수를 하기로 결심했고 다행히도 적성을 찾을 수 있었지만 집에서 독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했고 우울하고 축 처진 감정이 저를

엮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나의 길을 찾았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때는 미사시간이 유일한 저의 낙이었습니다.

미사시간 중에서도 영성체를 모실 때가 가장 좋았는데 영성체를 모시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성가대의 특송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가라앉고 내 안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멜로디만 듣다가 나중에는 가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예쁘고 마치 나에게 건네는 위로 같아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예민한 시기에는 특송을 들으며 울기도 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올해 드디어 대학교에 입학했고 청년성가대 'LAUS'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갑내기 보다는 언니, 오빠들이 더 많았지만 모두 좋은 사람들이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가 연습을 하면서 전에는 몰랐던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화음을 느끼고 너무 신기하고 듣기 좋아서 싸이클롭에 올려놓은 녹음파일을 집에 가서도 들었습니다.

노래로 하는 기도라서 그런지 부를 때마다 아직은 한참 모자란 저의 신앙심도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제가 특송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저의 노래를 듣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성가를 부르면 오히려 제가 행복해지곤 합니다.



201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면 올해의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에는 항상 성당에서 알게 된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가대 MT가서 물놀이 했던 기억, 청년 캠프에 가서 청년연합회, 전례단, 복사단의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기억, 생일파티를 하거나 어

디를 놀러가도 언제나 제 옆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7시 미사에 오셔서 성가 부를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청년성가대 LAUS 사랑합니다.♡ 🙏

'시계'보다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다.
삶의 성공이란 퍼즐의 마지막 피스를 채웠을 때 판가를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나아가 나침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울'이다.
'지금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수시로 돌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

이사야서를 마치며

이치화 리드비나

살아가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어버이성서-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할 때이다. 성서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7년 동안의 시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아는 게 없다는 점이 나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 제대로 외우는 성경구절 하나 없고, 현실 상황에 맞게 딱딱 올바른 비유를 할 수도 없으며,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신앙인으로써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라도 그나마 성서공부를 해왔기에 유지될 수 있음을 알기에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성서공부를 하시라고 권유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이사야서는 작은 구약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구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 같았다. 이사야 예언자의 신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유배 전, 유배 중, 유배 후의 시대적 배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심판과 위로, 구원의 약속 및 종말론적 희망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결국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창세기1, 31) 하신 후 인간의 죄악에 가슴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하신 이야기가 이사야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시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이다. 강대국의 틈새에 끼여 눈치를 보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신을 우상숭배하고 하느님의 규율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며 타락해가는 현실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고 다시 지으리라라고 선포하신 후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구

원의 약속을 해주신다.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죄를 짓고 회개한 후 용서받고 다시 또 죄를 짓고 회개한 후 용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나를 다시 보는 것 같았다. 41장 10절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43장 11절 “내가, 바로 내가 주님이다. 나 말고는 구원해주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틈만 나면 다른데 고개 돌리고 허튼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자신과 같음을 늘 보게 된다. 티나게 다른 신을 섬기진 않았지만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결정적인 순간엔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단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주님을 외면했던 무수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64장 7절에 “주님, 당신은 저의 아버지입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할 때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내게 찾아온다면 얼마만큼 준비할까? 내면의 모습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항상 하느님께선 저의 가장 추악한 모습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준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 다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 그냥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해서 그렇지 하와처럼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분에게는 절대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다는 불가능한 작은 내숭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때 주의 묵상들이 저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나를 생각해 보았다.

첫째, 남편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 믿진 않지만 제 신앙생활을 묵인해주는 것으로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남편이 미울 때가 많아서 하느님께 저와 자녀들만을 위한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고야야 할 십자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 숙제이므로 누구에게도 미룰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였음을 인정하는 순간 내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숙제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뵈러 같이 오고 싶다고…….’ 기도드린다.

둘째는, 늘 같은 내용을 듣고 또 들어도 주님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누구를 탓하랴 하는 생각에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한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어쩔 이리도 인간은 같은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지, 하지만 한결같음으로 용서해주시고 넓은 품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고자 노력한다.

셋째는, 주고받음의 계산을 스스로 하지 않으려 한다.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너는 이것을 주어라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 그냥 난 내 앞에 주어진 몫만 할 뿐 누구를 탓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하느님을 알수록 세상 살기는 쉽지 않았다. 참아야 하는 것이 많아졌고 참아지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마음속엔 폭풍이 일 때가 자주 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나다보니 자연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처음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같이 했었던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그만두게 되고 봉사자님을 포함해 총 7명이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하고 있다. 외유내강의 한결같은 로사리아 봉사자님! 웃으면서 끝까지 하셔야 할 것은 굴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반에 반도 못했었지만 받아 적느라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만언니 마틸다형님! 소곤거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묵상의 핵심을 꼬집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미카엘라형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셔서 역시 전문심리상담사는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티나지 않게 굳은일에 앞서시는 엘리사벳형님! 역시 개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타고나길 복을 타고 나셨는지 누구도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숨은 모범생 루시아형님! 늘 먼저 시작해주셔서 일 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난 왜 말씀이 탁탁 안 나오지?” 하시면서 푹부러지는 아네스형님! 지금처럼만 유지하셔도 되니까 넘치진 않음을 아쉬워마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셨던 봉사자님들과 같이 했었던 자매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어디에선가 하느님의 뜻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있음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더더욱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도 사랑해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

보시니 참 좋았다

— 창세기 성서 공부를 마치며 —

전영희 데레사



주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다. 따스한 봄날~

“너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 없이 대답하는 나에게 손을 잡아끌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셨다.

언제나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주님은 늘 함께 해주셨지만 그조차도 모른 채 주님을 탓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 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17, 1-2)”

흠 없는 이가 되라하셨지만 수많은 세월동안 난 주님의 자녀로 보이고 싶어 그저 주일만을 지키고 살았을 뿐 진정 주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또한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28, 15)”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노라 하셨지만 늘 급하고 참을성 없는 난 주님을 원망하며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

님께 끝까지 매달렸다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해주셨을 것이다.

야곱의 기도가 나의 마음을 울린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창세기32, 27)”

난 왜 이토록 기도 하지 못했을까…….

항상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했지만 그건 모두 주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에 맞는 축복이 아닌 나만의 영광과 나만의 욕심이었다.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1, 1)”

주님께서 만드시고 기뻐하신 곳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한 해였다.

주님의 말씀은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며 작은 열매로 내게 오고 있다. 지금 시작은 아주 작은 열매이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나의 신앙의 열매는 자라날 것 이라고 믿는다. 보시니 좋은 당신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당신의 말씀과 함께 언제나 보시니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품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항상 눈으로 읽는 성경공부가 아닌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해주신 봉사자님과 저희 반 너무도 좋으신 자매님들, 1년 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출애굽 성서 모임을 끝내고

허순옥 로사



+찬미 예수님

출애굽 성서 공부로 불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씀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신 나의 주님! 찬미와 흠숭 받으소서!

언제부턴가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나약해진 제 신앙은 소용돌이처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매번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돌기만 했습니다. 나름대로 벗어나려고 했지만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뿐, 나의 마음과는 달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힘들기만 했던 내 상황이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냥 제 자신조차도 외면하면서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치 마취제를 맞은 듯한 멍한 느낌으로…….

하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변함없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다정하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가슴을 닫고 숨어 있어도 항상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제게 올해 초 시작한 탈출기 성서모임 공부는 25년 전 창세기 성경공부 후 주님께 대답하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작지만 강한 목소리로 “저, 여기 있어요.”하고 대답했습니다.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는 제게 탈출기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고통, 시련,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의 삶을 이겨내고 부활로 가는 십자가의 길인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야훼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분만을 섬기며 그 분 뜻대로 행하는 길이란 걸 이제 저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탈출기 29장 45절~46절의 말씀 -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물면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한 가운데에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 를 가슴 깊이 뜨겁게 느낍니다.

부족하고 겁 많은 나를 신앙인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신 이해영(안나) 봉사자님과 끝까지 탈출기 공부를 함께 한 신명순(아네스), 김태숙(글라라), 박미순(소피아), 정경아(요세피나), 임주하(올리아나), 이영례(사비나) 자매님들, 서로 위로와 힘이 되어 주려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눈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나누고 함께 울고 웃던 자매님들과 함께 한 그 시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길 기도 합니다. 🙏

마음을 드높이 -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대화

성가정 갤러리 초대 김형주(이멜다) 개인전

큐레이터 장주미 클라라



성가정 갤러리에서는 2011년 11월 23일(수)부터 2012년 1월 3일(화)까지 서양화가 김형주(이멜다, 서울 대교구 압구정 1동 본당)님의 초대전 **마음을 드높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대화”**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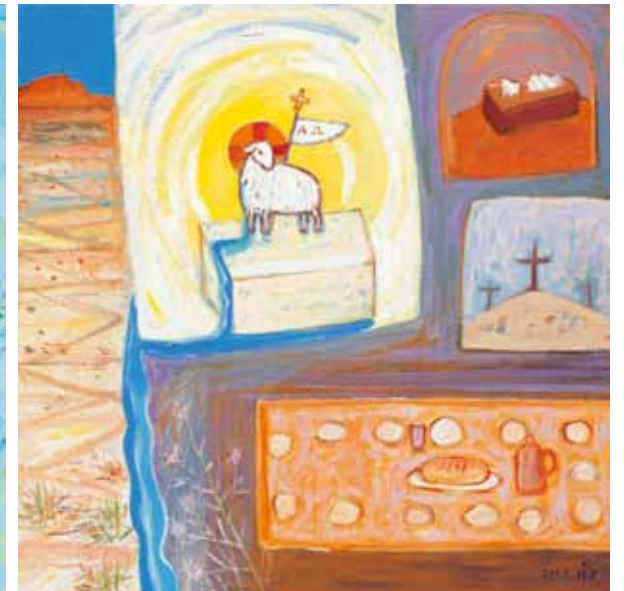
김형주 님은 가톨릭 미술가 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제 7회 가톨릭 미술상 본상(회화 부문)을 수상했으며, 전국 80여 곳의 성당과 성지에서 그의 성미술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 한국 가톨릭계의 대표적 원로 작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번 전시는 주로 성서 이야기의 연작들로 구성되는데 구약의 ‘토빗서’를 주제로 한 <토빗 이야기> 12점과, 올 한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발행 <매일

미사> 표지를 장식했던 작품 12점, 그리고 마태오 복음에 나타난 베드로 성인을 주제로 한 연작 12점이 포함된다.

그중 특히 <토빗 이야기>는 연작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토빗서를 12점의 생생한 그림과 더불어 옛날이야기처럼 요약된 설명을 함께 전시하여 우리에게 성경의 내용을 친근하게 전해주고 있다. 또한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바로 이 대림시기 동안 우리가 현대의 신앙인으로 지니고 살아가야 할 믿음과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훌륭한 묵상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한 번도 전시공간에 출품되지 않았던 3종류의 성서 이야기 연작(캔버스에 유채) 외에도 7여 점의 입체와 평면 유리화와 50호 크기의 “가나의 혼인잔치”(캔버스에 유채)를 선보이고 있다. 성서이야기의 본질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사실적인 유화 작품들과 자연의 빛을 머금은 블록유리를 사용하여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를 직접 투영시키는 듯한 유리화들의 대비 또한 관람자에게 흥미를 선사할 것이다.

다음에 옮긴 작가의 작업노트를 통해 우리는 왜 김형주 님의 작품들이 우리에게 유독 감동과 기쁨을 주고, 또한 희망으로 새로운 전례력을 시작하고픈 이 시기에 더욱 귀하고 감사한 성탄선물로 느껴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나날이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니, 그림의 주제가 자연 성서와 연관된 것이 많아 성서

이야기를 그려 보려고 마음을 정하고 조심스레 시작했던 것이 탈출기였고, 다음이 루카 복음이었습니 다. 전례시기에 맞는 그림들도 만들어 보려 하였고 요나 이야기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평화의 하느님을 표현하고자 시작했던 것이 26년전이었고 올해 <토빗 이야기>를 그리기까지 많은 작업을 했지만, 성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언제나 특별한 몰입과 기쁨을 가져다주니 매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며 하느님을 만날 기대에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도 김형주 님의 작품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마음 설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전시기간 : 2011년 11월 23일(수) ~ 2012년 1월 3일 (화)

* 문 의 : 성가정 갤러리 (02)2644-0236 / hfgallery@nate.com



사진으로 보는 본당의 소식

❖ 11월 2일 위령미사



❖ 매주 금요일 3시 성소 수도자 기도



❖ 11월 지역(구역)미사 * 10월 21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소성전에서 1지역 구역미사와 다과회 시작 11월 18일 금요일 7지역 구역미사까지 마칩



❖ 11월 11일 뿌에리칸토레스 합창대회



❖ 11월 6일 성체분배 봉사자 임명식



❖ 11월 13일 성체분배 봉사자 수여증 수여 및 단체장 임명

	<p>* 성체분배권 수여자</p> <p>이영균(멜키아데스) 전동검(십자가요한) 이원섭(베드로) 조순태(디토) 최종용(오네시모) 장광화(펠릭스) 신종익(안토니오) 최재영(요아킴) 최원모(발렌티노) 임찬호(요한) 여현수(프란치스코) 이남희(안드레아)</p>	<p>* 구역장 및 단체장</p> <p>1지역 5구역장 송기택(안토니오) 박은주(크리스티나)</p>	<p>슬기로우신어머니Cu. 이용일(윤일요한)</p>
--	---	---	----------------------------------

❖ 11월 27일 사목회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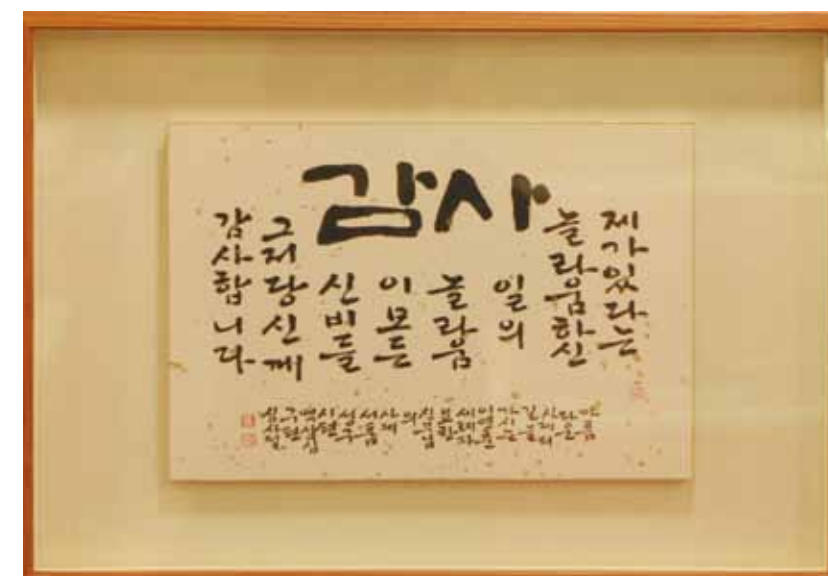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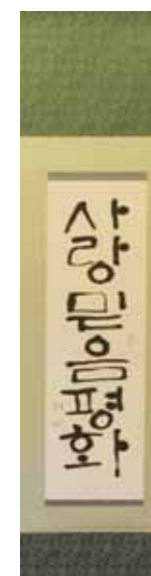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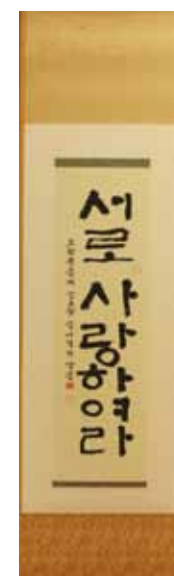




❖ 11월 5일 문화교실 작품 발표회



❖ 11월 19일 성서 필사 축성 및 전시



쉬어가기



매일은
반가운 초대,
새 아침이 밝으면
삶이 당신을 기다린다.
밝고 다채로운 삶이.



묵은 하루가 가고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다.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를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설레는 약속으로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을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씻지도 않은 채 기력도 없이 무덤덤하게 일과를 시작할 수도 있다.
(안젤름 그웬 -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 중에서)

성탄절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경축하는 성탄 시기는 12월 25일부터 주의 공현대축일까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기원 784년, 즉 기원 전 6년경에 탄생하셨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하하는 풍습은 동방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로마에서는 330년경 마지막 박해가 끝난 후 12월 25일을 정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기 시작했고, 이 풍습은 4세기 말에 이르러 보편화 되었다.

크리스마스 명칭의 기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어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미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그 안에서 하느님 아들의 탄생과 우리 영혼의 기쁨이 직면하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에서는 하느님 아들의 탄생으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날을 일컬어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또한 크리스마스란 중세기에 사용되던 크리스투스 미사(Christus Missa)에서 유래한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이다. 불어로는 노엘(Noel), 독일어로는 바이나하텐(Weihnachten) '축복된 밤'이라고 한다. X-mas의 x는 희랍어 그리스도의 첫 글자이다. 초대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생일보다(천상생명의 시작일로서) 사망일을 더욱 기념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그리스도의 생일에 대해서만은 성대하게 경축하게 된다.

전례력은 그리스도의 성탄을 부활과 함께 최대 축일로 정하여 경축하지만 예수탄생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나, 유스티노 황제 이후 12월 25일로 규정하여 지내오고 있다. 25일로 정한 이유는 그날이 로마인들의 태양신인 미트라(Mithra)의 축제일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의 미신을 타파하고 진정한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세우려 이날을 탄일로 정했다. ☞

1-2구역 9반 소공동체 모임

황영자 아네스



+찬미예수님
오늘은 야외에서 반모임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지난 밤 어린 아이가 소풍가듯 잠을 설치며 기다렸습니다. 이른 아침 프란체스카 자매 집에서 반원들과 함께 바치는 '가정성화 기도'

와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코스모스 축제가 한창인 구리시 토평리로 출발했습니다.

토평리에 도착하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이는 광경에 감탄하며 잠시 마술에 걸린 듯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 차도나 들녘에서 보던 코스모스가 만개하여 1km가 넘는 공원길에 하늘거리며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코스모스를 저는 오늘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코스모스를 본 순간 하느님은 위대하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오늘은 '하느님의 위대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감탄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또 외쳐봅니다.

자리를 깔고 준비해 온 맛있는 음식을 반원들과 나누다가 오늘 '급'변한 제 헤어스타일을 보고 프란체스카 자매가 가수 소녀시대 <Girl>같다며 사진을

찍자, 우리 모두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한바탕 웃고 난 후, 우리는 주님께서 선물하신 돌레길을 거닐며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과 마음에 가득 담고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랫말이 실감나는 나들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돌아온 코스모스는 분명 하느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나눔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당신의 사랑 안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느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기에, 세상 어떤 창조물보다도 우리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소중한 존재들의 모임인 만큼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크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어봅니다.

1-2구역 9반 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창세기1,10) ☞



디지털 사진 강의

강사 김형석(사진작가, SVA 졸업)

디지털 사진 100% 활용하기
(주 1회 80분 8주)

초급반 월요일 오후 4시~5시 20분
중급반 화요일 12시 30분~1시 50분

디지털 사진 강좌개요

사진의 기본적인 이해와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 및 개념을 배움으로써 변화되는 영상문화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일상생활에서의 사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신감과 편리성을 배웁니다.

교육효과

보편화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상 및 멋진 장면을 효과적이고 멋있게 기록할 수 있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금 더 변화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주별 강좌 내용

디지털 사진이란?(기초사진 이론 및 디지털 사진의 의미)
디지털 사진을 위한 장비 및 장단점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법
개인 사진 평가 및 토론

세부사항

- 1주 : Orientation 및 Q & A
- 2주 :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 및 컴퓨터, TV와 연결방법
- 3주 :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 1
- 4주 :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 2
- 5주 :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 3
- 6주 : Presentation - 각 기능에 따른 차이점을 사진으로 PT (강사 사진)
- 7주 : Presentation - 각 상황에 따른 촬영법을 사진으로 PT (강사 사진)
- 8주 : 광선 및 구도

* 주별 강좌는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 시간 개인 카메라 및 필기도구 지참



문화교실 전시회를 마치고

김정란 정혜 엘리사벳

퀼트 수업시간

초급 중급반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상급 연구반 월요일 오후 1시~3시

올해도 문화교실 전시회에 많은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다른 반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퀼트 작품을 발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개월에 걸쳐 틈틈이 구상하고, 천을 고르며 고민한 뒤 꿰매고 누벼서 마무리하게 되지요. 퀼트반이 시작된 지 10년 가까이 되고 보니 뛰어난 작품도 많고, 좋은 분과의 만남도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퀼트를 한다는 것은 주위의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퀼트란 대부분 천과 천을 잇는 patchwork(조각 잇기) 작업과 솜과 뒷감을 대고 누비는 quilting(누비기) 작업이 합쳐져서 비로소 완성되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소품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작품에 도전하다보면 퀼트에 관한 프린트나 책을 보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물론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보람된 작업이지요. 음악을 들으며 기본 도구인 실, 바늘, 가위, 예쁜 천, 솜 등을 써서 이리저리 패턴을 만들며 바느질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드는 작품이 되어 가고 있어 뿌듯해집니다.

가을학기는 소망의 별을 주제로 큰 작품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소망을 담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퀼트 작업은 손으로는 바느질을 하지만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며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좋은 취미라 생각합니다. 차를 마시며 좋은 사람들과 성당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지요. 또한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안의 다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내년에 퀼트 반에 오셔서 퀼트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사진으로 보는 월요음악회

사랑으로 노래하는 우리아버지합창단(11월 7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탈출 20,12)

우리가락 훨훨~~ 국악관현악단 슬.기.동.(11월 21일)



2011 해나리 월요음악회를 마감하며

— 해보니 좋았네요 —

주세페 김동규 (예술감독 / 팜페라테니)



성당에서 상설공연을……?
과연 잘될까?……

은근히 우려하며 시작했던 해나리 월요음악회가 지난 11월 21일 ‘슬기동의 우리가락 훨~훨~’까지 모두 16회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늦가을 추위에 비록 성황을 이룬 공연은 아니었으나 1000명 관객이 부럽지 않은 열기와 호응에 깜짝 놀라며 공연을 했었다는 말을 다음날 공연 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듣고 그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왕 하는 것, 관객을 꼭 채우고 공연을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이 기획자나 공연 팀의 일반적인 바람이기에 1000석의 성당크기 앞에서 관객 확보에 대한 부담이 다소 크게 느껴졌었고, 거기에 탈종교, 탈장르, 다문화라는 테마가 실제로는 부담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세 가지 테마는 참으로 거창하고 좋으나 공연이란 것이 흥행을 위주로 공연 팀을 섭외하자면 연예인이나 인지도 있는 팀을 섭외해야 할 텐데 경비 감당이 안 될 것이 뻔했고, 음식처럼 문화도 편식하지 않도록 골고루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균형 있게 기획하자니 혹시나 요즘 TV방송을 통하여 높아진 관객의 기대와 취향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 회 공연을 올릴 때마다 우려도 컸습니다.

초기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교육자로 퇴임하신 아버지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다가 교회교회는 학교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가르치는 곳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동안의 공연기획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님은 비유로 좋은 메시지를 주시며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문화 공연도 사람들의 정신에 좋은 변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고 지치고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이제는 내게 맞는 것을 찾아 나설 때이며, 이제 잘 차려진 공연으로 심표를 찍고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면, 누구나 어제보다 더 창의적인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가정성당의 본보기로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나와 너의 구분 없이(탈장르, 탈종교, 다문화) 서로가 서로를 읽어주는 소통의 길을 목5동 성당의 해나리 문화마당에 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었는지 매 회 프로그램마다 특색 있게 진행된 것 같고, 그 동안 공연활동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만난 공연 팀들 중에 언젠가 꼭 초대하고 싶었던 분들이 어려운 출연 제의에 기꺼이 응해주셨기에 그 동안 우리가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보람과 행복도 느꼈습니다.

본당설정 25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해나리 월요음악회가 더 잘 정착되어 우리 주변에 굳어버린 편견과 오해들을 다양한 음악백신으로 녹여버리는 진정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화합의 문화마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동분서주한 젊은 스태프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기뻐고, 어느새 익숙해진 관객들의 얼굴을 볼 때 기뻐고, 부부가수의 서툰 진행사회에도 관대함을 보여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고마웠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본당 신부님과 사목협의회, 특별히 매번 공연준비에 함께 고민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유찬욱 문화 분과장님과 늘어난 일에도 기꺼이 지원해주신 사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보니 좋았네요. ^^~

해나리 35

하늘땅물벼의 물품 소식

우리 농산물 물품 변동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재공급 물품 : 원주교구 - 밤, 오디잼,

광주교구 - 천일염, 싹다시마, 가닥미역,

안동교구 - (중파, 더덕, 통연근 - 유기농),

마산교구 - 단감(저농약), 까나리 액젓

닭 가슴살과 닭다리 순살은 200g으로 중량조절.

고등어살, 간고등어, 은갈치

중단된 물품 : 사과즙, 생알땅콩, 대파, 포도, 사과, 생강가루, 도토리묵,

도토리가루, 옥수수차(청주), 카레, 어묵류, 쌀소라형 과자,

착한감자, 착한새우, 참쌀유과 (현미유 부족)

'빛고을식품'의 우리농 젓갈

이번 달에는 김장철을 앞두고 전남 무안군에서 젓갈류를 제조하여 우리농에 공급 하고 있는 '빛고을 식품'을 소개합니다.

젓갈은 원재료와 소금의 비율이 잘 맞아야 발효되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간혹 다른 것을 섞어 만든 불량 젓갈로 매스컴이 떠들썩할 때면 소비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전화하시는 분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젓갈 장사로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맛도 까다롭고 눈높이도 높아져서 정직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새우의 경우, 신안 비금도 전장포 인근해역의 새우가 국내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20% 정도가 강화지역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국내산 새우젓은 대부분 이 지역의 새우로 담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우젓은 새우 75%, 천일염 25%의 비율로 선상에서 바로 절입니다.

옛날에는 작업장으로 수산물을 가져와서 절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노동력도 부족하거니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전부 배에서 바로 절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어져 드럼통에 담긴 새우는 목포 인근에 있는 토굴로 이송되어 보관됩니다.

오젓은 음력 오월에, 육젓은 은력 유월에 잡은 새우로 담근 것을 말합니다. 새우젓은 다른 젓갈에 비해 발효기간이 짧아 2, 3개월 지난 후 꺼내서 공급합니다. 멸치젓, 황석어젓, 갈치속젓 역시 선상에서 바로 절여 토굴에서 1년 이상 자연 숙성시킵니다. 20년 이상 실천해온 '빛고을식품'의 정직함이 앞으로로도 변함없길 바랍니다.

2011년 10월 1일 - 10월 31일 전입교우 명단

전입 월	교 우	주 소	지역 / 구역 / 반
10월	신정자 막시마 외2	목5동 목동A 222동	2지역 2구역 5반
	김태정 마르타	목2동 우성A 103동	1지역 2구역 8반
	조성원 아오스딩	목5동 드림네스트	7지역 1구역 7반
	정은정 소화데레사	목5동 목동A 122동	1지역 3구역 2반
	임재택 안셀모 외2	목5동 목동A 531동	5지역 3구역 3반
	정윤덕 수산나	목5동 목동A 604동	6지역 1구역 3반
	손완업 아타나시오	목5동 목동A 514동	5지역 2구역 1반
	서승석 유스티노 외1	목5동 목동A 408동	4지역 2구역 3반
	박지수 대건안드레아 외3	목5동 목동A 615동	6지역 2구역 6반
	김준엽 미카엘 외3	목1동 하이페리온 102동	7지역 3구역 4반
	오주미 안젤라	목5동 목동A 219동	2지역 1구역 10반
	이시권 펠릭스	목5동 목동A 533동	5지역 3구역 5반
	권용선 그라시아 외1	목5동 목동A 515동	5지역 2구역 2반
	김민철 베드로 외3	목5동 한신A 106동	1지역 4구역 3반
	최은경 로사	목1동 파라곤 105동	7지역 4구역 3반
	이혜선 안젤라	목5동 목동A 108동	3지역 2구역 3반
	노진영 안나 외2	목5동 한신청구A 109동	1지역 4구역 5반
	이철우 요셉 외4	목5동 목동A 514동	5지역 2구역 1반

★ 교우 여러분의 원고를 받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글이 해나리의 힘입니다.

성당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원고지에 옮겨주세요.

분량은 A4 용지 1-2매 정도면 좋습니다.

원고 쓴 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나리 메일로 보내주세요.

haenari0330@hanmail.net 입니다.

대개의 경우 불확실성은 재앙보다 더 나쁘다.

재앙은 자주 오지 않지만,

걱정은 늘 곁에 머물며 우리의 진을 빼기 때문이다.

돌이 날아올지 꽃다발이 날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돌이 날아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걱정도 없다.

“던져라, 그걸로 그만이지 뭐.”

이런 단호함과 신념이 있으면

긴장, 동요, 공포,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에크나트 이스워런의 《인생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중에서 -

유럽 학생들과 함께하는
제39차 아일랜드.영국 영어연수
주관 : 마 브랜단 신부
초4~고1 : 1/7~1/29(정규학교)
대 & 일반 : 1/3~2/19
*EID 학원 or 국립 더블린 대학교
문의 : 그린피스 E&T 02-3446-4253~4

굿모닝 공인중개사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전문
매매 · 전세 · 월세 구함
2649-9200
목동APT 6단지 611동 앞 관리동 상가
김정숙(효주 아네스) H.P 011-9498-9433

타임부동산
목동아파트 전문
안인근(안젤로) 조정례(안젤라)
(代)2654-1055
- 목동5단지 A상가 105호 -

나눔 공인중개사
2643-5050 (주, 야간 가능)
박정림(엘리사벳) H.P 010-2203-1140
목동3단지 일반상가 328동 앞 하나은행 옆

이재형 베네딕토 수하학원
소수전문
하이베라스 건물
학원 폰은 011- 9974- 2959

상담센터 **행복한 아이들**
TEL 02-2653-4306~7
소장 정미나(헬미나) 현대드림타워 209호
(방송회관 옆 스포츠조선 건물 2층)
아동상담 - 학습치료 · 놀이치료 · 언어치료
발달장애 - 통합치료 및 교육 미취학 또는 취학 아동의 예비학교
집단상담 - 학습능력향상 / 주의집중력강화 / 사회성 향상
성인상담 - 개인상담 / 부부상담 / 부모역할훈련
심리검사 - 자녀의 지적수준과 성격특성을 진단하여 정서 및 학습 등에서
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도움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태원 공인 중개사
2648-1199. 010-9889-9930
전양숙(수산나) 백문선(토마스 빌라노바)
목동 1단지 A상가 106호
목동아파트, 한신청구, 부영, 오피스텔 전문

이화 공인중개사
김은숙(비아) 김현숙(아네스)
Tel : (02)2644-0043
H.P : 010-7272-7318
목동 2단지 일반상가 118호
등록번호 : 82413342

온누리 공인중개사
신공웅(도미니교) 010-3253-2263
하영숙(바 올 라) 010-9671-2369
☎ 02-2649-5580
목동3단지 301동 앞 일반상가 하나은행 옆

만 4세부터 성인까지
1:1 맞춤형 피아노 방문레슨
어드벤처피아노
성악 개인레슨, 관현악 개인레슨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클라리넷, 오보에)
www.edu-prime.co.kr
양천.구로지사 **2605-0117**

꿈나무 소아과
소아 아토피 피부염 정연정(안나)
소아 중이염 원장/소아과 전문의
알레르기 클리닉
영유아 발달검사
158-055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7 광장빌딩 3층
TEL : (02)2643-8155 FAX : (02)2643-8154

정관장홍삼 신월동점
TEL.02)2693-0389
양천구 신월동 535-7 로즈그린타운 1층 101호
-대한민국명품홍삼-
소중한 분을 위한 최고의 건강선물 ※ 전국 무료 택배 ※
석영근(마르티노) 018-286-8387
(주)한국인삼공사 김은숙(카타리나) 010-8889-2083

목동텔레콤
이 애 경 (루시아)
H.P: 010-3286-7604
TEL : (02) 2642-7604 FAX : (02) 2642-7606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10 현대파라지앙 1층 106호
SK telecom SHOW LG Telecom

세레니고 피부 관리실
20년 명품주의 코리아나가 운영하는 세레니고 목동점
소중한 피부를 위한 고품격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의 세레니고 목동점
개인룸, 커플룸, 다인룸 완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피부를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김광식(아오스딩) · 이은경(이레네)
부영그린2차 2층 ☎ 2645-0580

2012 대학생 겨울방학 해외영어연수
8주 ESL 과정
* 대학생 / 직장인 장단기 해외 영어연수
- ESL / BUSINESS ENGLISH / TESOL
* 주니어 조기유학 / 해외 영어캠프
* 해외 입학서류 영문번역공증 · 유학 및 귀국학생
문의: 목동패러다임 유학센터 성 안젤라
목동트윈빌 234호 Tel 2648-7011 CP 010-6280-7011

강서 성모내과
◆ 내시경 (위 · 대장 · 수면 내시경)
◆ 초음파 (심장 · 갑상선 · 복부)
◆ 혈액 종합검사
염창동 국민은행 앞, 전화 : 3662-7585
원 장 : 김 영 준 (펠릭스)

핫셀치킨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삭바삭한 베이크치킨
고단백 저칼로리의 트랜스지방 걱정 없는 구운치킨
입니다. 목동점과 함께 하세요.
단체모임/배달 가능합니다.
김군자(마리아)
목동점: 02-2653-9282
- 309동 뒤 강서고등학교 입구 -

공인 결혼정보사 - 초 · 재혼 · 만혼
m · j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전문 커플매니저 시스템
Tel. 1566-6205 / 02-3141-3888
H.P 010-9236-2700
대표 김 마리아

자동차의 모든 것
★ 중고차 매매
★ 신차 (국내 전 차종 및 수입차)
(주)서안모터스 이현인 (바오로)
H.P. 011-241-1212

- 해나리 광고안내 -
광고료 : 1호 1회 3만원 3회가 기본입니다.
광고신청 및 광고문안 : haenari0330@hanmail.net
백명애 마르가리타 011-9899-3866
계좌번호 : 외환은행 327-22-01559-1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2011 송/년/음/악/회

또 다른 날들을 바라보며



린나이팝스오케스트라

지휘 최선용 | 특별출연 팝페라 듀오아임(주세페김, 김구미)

일시 2011년 12월 31일(토) 저녁 8시 장소 천주교 목5동 성당 주최 천주교 목5동성가정성당 사목협의회